

인민의 꿈을 꽃피워주는 나라

언제나 공화국을 방문했던 한 해외동포가 쓴 글 《인민의 꿈을 꽃피워주는 꿈》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신비롭게도 공화국인이 꾸는 꿈은 기적이 실현되곤 한다. 공화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꿈이 어떤것이든 인민이 꾸는 꿈은 반드시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의 꿈. 인민은 수수천년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왔다. 력사의 수레바퀴를 자기의 창조적지혜와 노력으로 쉬임없이 굴러온 인민. 하긴 력사의 대상으로만 취급되어 오던 착취계급사회에서 인민의 꿈이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한갖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다.

하여 인민들은 자기의 꿈을 짓밟은 압제의 사슬을 끊자고 결사의 투쟁에 떨쳐나서기도 하였고 자기들의 소박한 꿈을 실현해달라고 하늘에 빌어도 보았다. 때로는 희움과 기만을 지배와 억압의 수단으로 삼는 권력자들에게 희망을 풀어보기도 하였으나 그 결말은 언제나 비극적이었다.

지난날 우리 인민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였다. 더우기 나라없던 그 시절 봄내 여름내 두손이 모자라게 땅을 두지고도 가을이면 모조리 빼앗긴 설움에 울고 보리고개를 넘기지 못한 자식들을 품에 안고 가슴을 쥐어뜯던 사람들, 돈이 없어 병에 걸렸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학교문제로조차 갈수 없고 집이 없어 남의 집의 양간에서 초가삼간을 꿈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 인민들이었다. 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그 누구도 실현할수 없었던 인민의 꿈과 리상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불세출의 위인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높이 모심으로써 비로소 실현되게 되었다. 인민들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공장과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을뿐 아니라 인민의 대학을 세워 품속에서도 갈망하던 배움의 열망과 소원을 풀어주시었으며 집없는 탓에 《부엌너》, 《외양사》, 《헛간네》, 《교랑너》라고 불리워야 했던 인민에게 제 이름을 안겨주시는 이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어찌 그뿐인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민을 전반적부상치로제와 전반적무료교육제도, 세금없는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는 분도 다름아닌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 민족이 나아갈 정로를 찾아 위하여 불철주야의 사색과 탐구를 기울이시면서도 한쪽으로는 탐기르기와 기계공학, 전기기본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참고도서들을 열심히 탐독하시는데 대해 당시 그이를 몸가짜이 모시고있던 사람들도 그 불타는 탐구의 목적이 어디인지 다는 알지 못하였다. 사실 그때 벌써 위대한

오관을 마련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그 문필가는 위대한 수령님께 슬기로운 조선인민의 번영을 위하여 부디 건강하시기를 축원한다고 정중히 인사를 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해서 오래 살라니 참으로 고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진정한 자신의 삶 전체를 인민을 위하여 쓰여주시고 인민을 하늘로 받들신 아버지를 어찌 이 나라 인민이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잊을 수 있으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한평생 가꾸어주시고 꽃피워주시신 인민의 꿈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더욱 굳건히 지켜지고 꽃피어나게 되었다. 시련의 고비가 수없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변함없이 산군장정의 길을 걷고 또 걸을것이라고 하시며 인민을 위해 초인간적인 강행군길을 웃으며 헤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해 인민의 참된 삶의 터전

인 사회주의가 지켜지고 공화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세계무대에 우뚝 올라섰으며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질것을 갈망해온 인민의 세기적적망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 인민의 모든 꿈은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모시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철락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존엄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인민의 오랜 소원을 풀어주시려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시려고 공화국의 힘을 그 누구도 범접 못할 무진막강한것으로 다져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랴.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 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이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라고 하시며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그이의 모든 사색과 실천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잇닿아있으며 그이께서 남기시는 자욱마다에서는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전설들이 꽃피어나. 창천거리,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연평과학자휴양소, 삼지연시와 송신, 송화지구에서 펼쳐진 새집들과 새거리들을 바라보아도, 인민을 위한 섬으로 더욱 훌륭히 변모된 통라도와 속섬이며 양덕문화은천휴양지,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통일거리운동센터를 비롯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 가보아도 인민의 꿈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떤 로고속에 실현되고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참으로 세계적치사는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인민의 리상과 모든 꿈을 현실로 전변시키시는 절세위인, 결출한 령도자를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은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는 천하제일락원, 천하제일강국이 일떠서게 된다는것, 바로 이것이 공화국인민들의 심장마다에 굳게 간직된 신념이다. 회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이 나라 인민은 가장 위대한 인민으로 존엄되며 머지않아 모든 영광을 맞이하고 만복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저희의 통일승망을 이루어주시려고 (3)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를 계기로 북과 남의 통일애국력량은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결속되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었다. 4월남북련석회의의 결정과 격문을 받들고 북조선인민들은 주체 37(1948)년 4월 평양에서 34만여명의 참가원에 남북련석회의를 지지하는 시민대회와 군중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신의주, 청진, 원산 등 각지에서도 군중대회와 시위들을 려이여 벌리고 남조선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들에서는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인민봉기가 일어났다. 투쟁은 남조선의 10개 도(서울시와 제주도 포함), 156개의 시, 군가운데서 142개의 시, 군에서 벌어졌으며 100만명의 각계층 인민들이 이 투쟁에 참가하였다. 하여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는 전체 조선인민의 거족적인 항거에 의해 완전히 파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친미사대세력은 선거결과를 날조하여 1948년 5월 30일 《국회》를 조작한데 이어 8월에는 《단

전조선적인 민주주의 통일정부를 수립하시어

거의 빛나는 승리에 기초하시어 주체37(1948)년 9월 2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을 위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소집하시었다. 대의원 572명(북조선에서 선거된 대의원 212명, 남조선에서 선거된 대의원 360명)이 참가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북남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를 구성하였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소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오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공화국의 창건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수반으로 모신 더없는 행복과 한 조건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77.52%가 간접적방법으로 선거에 참가하여 1 080명의 인민대표들을 선출하였다. 이어 해주에서 8월 21~25일사이 진행된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에서 360명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을 선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

언제나 조국통일문제에 마음쓰시며

인민들에게 줄 가장 훌륭한 선물. 인제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미국의 《뉴욕 타임스》 기자들을 만나시었다. 석상에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제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관계문제, 조선의 통일문제와 그를 위해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실제적인 조치들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자세하게 대답을 주시었다. 이어 그들이 인민들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고 말씀했을 때 그이께서는 그것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우리 인민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었다. 단결하면 통일은 실현된다. 지으시고 마땅히 대해주시는 수령님께 그는 주석님께서는 국가의 위치에 있는 자기를 친히 만나주시였는데 이것은 보통단을 가지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석님의 사랑과 인품은 참말로 위대하다고 자기의 심정을 말씀드리며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의 성과를 지지하는 평양시민들의 군중집회

주체80(1991)년 12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해외에서 온 한 교포를 만나시었다. 그로 말하면 한때 공화국에 대한 반감이 컸던 사람이였다. 과거를 불문하고 환대하여주시는것만도 황송한데 자기의 소원도 헤아리시며 자리를 함께 하신 수령님을 뵈옵게 된 그는 반복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시종 너그러운 미소를 띠고 사의를 표하며 선생의 조국애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시었다. 이어 그와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주석께서는 숭실중학교에서 공부한 선생을 만나니 반갑다고 하시며 선생이 미국에 가서 애국활동을 계속하였다고, 그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었다.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한다면서도 실상 숭미사대와 반공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더구나

하늘이 낸 위인. 나 통일에 대한 견해도 미흡한 자기를 애국지사로서, 애국활동을 하였다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과분한 평가에 그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주석께서는 그와 오랜 친지관계처럼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평양을 오늘처럼 웅장화려한 도시로 건설한데 대해서 우리 나라에서 사대주의의 력사적근원과 그 해독성에 대하여 그리고 조국통일을 반드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실현할데 대한 문제 등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한 그리스도교목사의 가슴속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선생이 고향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찾아 먼길을 온

본사기자 리연선, 본사기자 김철진, 본사기자